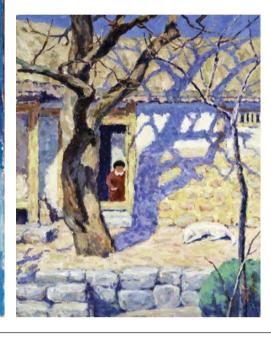
첫 만남…남도미술의 도도한 흐름을 만나다



▲허백련 작 '응시도', 오지 호 작 '남향집', 김환기 작 '산월'. (위부터 시계방향)



김환기·천경자 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등 70점 공개 광주시립미술관 '남도미술_뿌리'전 6월 8일까지 무료

전시장에서 강렬한 느낌을 전하는 작품은 신비로운 푸른빛을 주조로 한 김환기의 '산 월' (1968)이다. 프랑스 유학 시절 제작된 작 품은 산과 달, 구름 등 한국의 자연을 연상시 키는 소재를 자유롭게 배치했다. 바로 옆에는 텅빈 회색 캔버스에 다양한 색감의 작은 사각 형 점들을 배치한 김환기의 대작 '무제-이른 아침'도 만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광주에서 는 처음 선보이는 그림이다.

맞은 편 벽에는 오지호의 대표작 '남향집' (1939)과 '무등산' (1969)이 걸렸다. '어머니산' 무등산의 이미지를 회색빛으로 담아낸 '무 등산'은 소박하고 따뜻하며 추상 느낌이 풍기는 '열대어'는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허백련의 '사군자'와 '산수화'에서 시작된 전시는 황재형의 '황지 330' (1981)으로 끝난 다. 극사실로 그려낸 탄광 노동자 작업복은 늘 어진 런닝셔츠의 주름, 틑어진 실밥까지 그대 로 표현해 깊은 울림을 준다. 전시실을 둘러보 면 다음에 만나게 될 작품이 계속 궁금해진다. 손재형·허건·천경자·조방원을 거쳐 배동신과 양수아·임직순·백영수·최쌍중·여운·손상기의 작품까지 줄줄이 대기중이다.

2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에서 개막한 '남도미술_뿌리 Roots' (6월8일까지)전은 한국 화단의 큰 맥을 형성한 남도작가들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 범모)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기획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52점과 광주시립미술 관 소장품 15점 등 50여명이 작가 67점을 만 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출신 작가들의 작품임에도 정작 광주 및 호남지역에 서는 한 번도 공개되지 못한 국립현대미술관소장작을 만나는 기획이다.

전시는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전통의 계승-수묵과 진채'는 허백련과 허건이 추구한 남종화의 정신과 화법을 기반으로 화가들이 이룩한 독자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한국 전통미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허백련의 '응시도'(연도미상)를 비롯해 허건의 '목포다도일우'(1952), 조방원의 '고사관폭도'(2000) 등이 전시중이며 천경자의 드로잉 작품 '꽃과 뱀'과 '자화상'도 눈길을 끈다. 서예의 도도한 흐름도 만날 수 있다. 손재형의 '이충무공시'(1954), 하남호의 '품자고'(1971), 조기동의 '개원상천'(1985) 등이 전시중이다.

두번째 섹션은 '근대의 변화-유화와 조각' 이다. 오지호의 작품을 시작으로 화려한 꽃과 여성의 이미지를 화면에 배치한 임직순의 '모자를 쓴 소녀'와 '화실', 배동신의 날카로운 풍모가 느껴지는 '자화상' (1963), 화려한 색채와 두터운 마티에르로 풍광을 묘사한 최쌍중의 '산사입구' (1986) 등을 만날 수 있다. 또민중미술의 한 획을 그은 여운 작가가 창문틀과 신문 등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 74' (1974), 작가의 삶이 오버랩되며 깊은 울림을 주는 손상기의 '자라지 않는 나무' (1985)도 눈길을 끈다.

남도 추상화의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김환기의 작품을 시작으로 화려한 색의 배합으로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강용운의 '봄'(1947), '에 뽀끄' 창립멤버인 최종섭의 '작품-69'(1969), 지난해 타계한 백영수 작가의 '게'(1963) 등이 전시중이다.

그밖에 김영중, 김찬식, 김행신, 고종수 등 독창성을 추구한 남도 조각가들의 작품도 관 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김환기· 허백련 등 남도 대표 작가의 숨결을 만날 수 있 는 '남도보물 100선' 영상도 상영중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613-7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남도미술의 뿌리전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김준태 5·18 시집 '광주로···' 日 언론 소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 와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5·18민중항쟁의 실상을 시로 널리 알린 김준태 시인의 시집 일본어판 '광주로 가는길'이 일본의 신문과 잡지에 서 다뤄져 눈길을 끈다.

2019년 3월 22일자 주니치신문(中日新聞)은 석간 문화면에서 '번역시집의 간행 잇달아/ 저항의 외침, 문학으로 승화/ 보편성을 실마리로 교류 창출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마련해 김준태 시집을 소개했다.

김준태 시집의 역자는 문병란 시집을 일 본에 소개(히로오카 모리호 교수 공역)하 고 최근 오사카의 간요출판사에서 '한국에 서 바라본 전쟁과 문학'을 펴낸 김정훈 전 남과학대 교수다.

주니치신문 기자는 김교수의 "민주주의 와 인권, 평화의 정신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 점을 밝히고 있는 이 시집은 일본에서도 보편성 을 지니는 셈"이라고 강조한 내용을 언급 했다.

또한 주니치신문은 본문에서 한국의 저항시인 김준태를 다른 나라의 저항시인과 비교, '광주사건을 세계에 호소한 시인'으로 소개하며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신문에 발표해 계엄군의 운동탄압을 규탄하다가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폴리 도슨트 8일까지 모집

(재)광주비엔날레가 8일까지 제6기 광 주폴리도슨트를 모집한다.

광주폴리도슨트제는 지난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는다. 광주폴리도슨트는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폴리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광주폴리투어를 진행하며 광주폴리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매년 약 2000여 명이 광주폴리 투어에 참여, 광주폴리가 광주의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6기 광주폴리도슨트는 2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도보로 장 시간 해설이 가능하고 문화와 예술, 광주 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기본 지식을 갖추 고 한국어 및 외국어로 해설이 가능하면 된다. 특히 건축과 미술, 관광 등 관련학과 졸업자 및 문화관광 해설 경력을 우대한 다.

합격자는 서류 전형 및 교육 과정을 거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서류 심사 통과자 대상의 교육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광주 이야기와 건축 및 광주폴리에 대한 강의, 광주폴리 현장 투어, 그룹별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재)광주엔날레 또는 광주폴리 웹사이 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gfolly@gwangjubiennale.org)로접수 하면 된다. 문의 062-608-426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태선 광주국악협회장 연임…임기 4년



함 태선 (64·사 진) (사)한국국악 협회 광주시지회 (광주국악협회) 지 회장이 11대에 이 어 12대 지회장에 연임했다.임기는4 년이다.

광주국악협회는 지난 30일 오후 32차 정 기총회를 열어 12대 지회장에 함 지회장을 선임했다. 11대 지회장을 지낸 함 지회장 은 12대 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 됐다.

함 지회장은 40여 년 간 문화예술교육 활동을펼쳐왔으며(사)대한전통문화예술 협회 이사장, 문화시대, 투데이코리아 발 행인을 역임했다.

그는 "지역 국악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임기 동안 발로 뛰며 국악발전을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등이 진행 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식홍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변회원모집 신앙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2/221-4101,3

구 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 인 (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